

# 서민가계 더 팍팍

의료비 5년새 42%↑·가계적자 37만원 급증

통계청, 3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비지출 조사

지난 5년간 저소득층의 가계소비 지출 중 보건·의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같은기간 저소득층의 영끌계수(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등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저소득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의 월평균 가계소비 지출 가운데 보건의료비가 지난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 3분기 1분위 계층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2만785원으로 5년 전인 2005년 3분기의 8만5097원에 비해 41.9% 증가했으며, 지난해보다도 2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비지출 평균 증가율(25.1%)과 비교하면 보건의료비 지출은 급격하게 늘고있다.

특히 보건비 중에서는 치과 서비스가 5년 전과 비교해 1만3861원으로 60.7%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입원서비스도 3만1316원으로 54.9%나 급증했으며 외래의료서비스와 약품도 3만2970원, 3만4115

원으로 44.1%, 30.3%씩 증가했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항목으로 5년 사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5년 사이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도 커졌다. 전체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영끌계수가 1분위 계층의 경우 지난 3분기 21.74%로, 2005년 3분기의 21.94%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저소득층의 영끌계수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올해 이상기온 등의 여파로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료품비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가계 적자액도 5년 전보다 늘었다. 2005년 3분기 1분위 계층의 가계소득은 80만5893원이었으며 가계 지출은 116만8913원으로 집계됐고 올 3분기에는 소득과 지출이 각각 105만8300원과 142만9646원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저소득층의 가계 적자액은 2005년 3분기 36만3020원에서 올 3분기 37만1346원으로 늘어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기준금리 인상 불구

### 보험사 이율은 하락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도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나타났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이달 들어 공시이율을 일제히

인하했다. 공시이율은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로 매달 초 공표된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5.0%였던 공시이율을 이번 달에는 4.8%로 내렸다.

삼성화재는 공시이율을 4.9%에서 4.8%로 인하했다.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도 공시이율을 낮췄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농협조합장들은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농협 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전국 조합장 대책위... 국회 조속 처리 촉구

농협 조합장들은 최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열어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남평농협 김병원 조합장과 광주축협 안명수 조합장 등 전남지역 7개 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또 농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연합회 방식의 사업부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연내에 처리

하지 못하면 20년 가까이 끌어온 농협 개혁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도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농협의 신용사업(금융부문)과 경제사업(유통, 농산물 생산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빼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나 검찰의 ‘청목회’ 사건 수사에도 북한의 연평도 폭격,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현안에 밀려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측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인데다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 정도의 준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정안 심사가 미뤄지면 임기 말, 대선 정국과 겹쳐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대책위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 쌀직불금 가구당 88만원

전남도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총 1279억원의 고정직불금을 농가별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도내 지급 대상은 14만4915명, 18만542ha로 농

가당 직불금 평균지급액은 약 88만 2000원이다. 또 ha당 지원 기준금액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74만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7000원이며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을 신청한 농지 소재지 시·군을 통해 지급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악재 소멸... 추가 상승 기대 IT·유통·금융업종 관심

북한의 연평도 도발, 유럽의 재정 위기 등 기존 악재의 영향력이 누그러진데다 미국의 연말 소비가 늘면서 코스피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관련 악재가 장세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동시대에 제한적이었다. 물론 유럽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악재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들먹이면서 파문의 확산을 우려했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한산한 가운데 정책 이슈가 장세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부시 감세안의 율해 말 조표를 앞두고 미국 의회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부시의 감세안 연장에 의회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기대한다.

이런 시장의 기대처럼 미국에서 부시 감세안이 연장될 경우 외국인 매매와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를 통하여 미국 연말 소비증가를 확인한 상황에서 버냉키 의장의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맞물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변수로는 목요일 선물만 기일과 금통위가 관심인데, 금리를 올린 지 얼마 안 되었고, 지정학적 위험과 유럽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는 동결, 시장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기존 악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장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의 연말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와 부양 정책 연장에 따른 효과 등에 힘입어 코스피지수의 상승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수급적으로도 해외 변수 안정과 위험자산 선호에 따라 외국인 매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본형 랩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종목 찾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주 후반처럼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대한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수가 상승하여 전고점 부근 이상에서 펀드 환매가 일어 나면, 투신권 자금 운용에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등 시장의 항공모함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할 경우 관련 종목 편입을 위해 상당한 종목들의 투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주도 종목 중심으로 매매 대상을 압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IT, 자동차, 유통, 금융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그동안 주식시장 참여를 기다려왔던 투자자라면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SINCE 1982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light(자외선)를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게모르게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227-994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식품부**

## 구제역, 모두가 힘을 모으면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소독과 신고로 내 가축을 지킵시다.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 마을별로 공동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효과를 높입니다.
- 매일 1회 이상 농장 안팎을 소독합니다.
- 외부 출입자와 차량 출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차량 및 운전자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속히 신고합니다.**

- 소, 돼지, 사슴, 염소의 입술과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 절룩거림, 유양 감소, 침 흘림 등 구제역의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 의심 축 발생 신고가 늦으면 살 처분 보상금 등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농가 모임은 자제하고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모두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9060 / 1588-4060이나 관할 가축위생시험소, 시청 또는 군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 ✓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 ✓ 신속히 신고합니다.
- ✓ 농가 모임은 자제하고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모두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9060 / 1588-4060이나 관할 가축위생시험소, 시청 또는 군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시면 됩니다.